

## 한·중 科擧 經義文 비교\*

- 조선시대 四書疑·五經義와 명·청대 八股文을 중심으로 -

윤선영\*\*

### 목 차

1. 들어가며
2. 한·중 과거제에서 經義 시험의 역사
3. 조선의 疑·義와 명·청대 팔고문의 주자설 인용 방식
4. 18세기 후반 이후 주자설 의존도 변화 양상
5. 나가며-의의와 한계점을 대신하여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과거에서 經義를 시험하기 위해 치러진 과목들의 답안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들여다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의 四書疑·五經義 과목과 명·청시대의 八股文에 대해 주자설 인용 방식과 의존도 변화 양상에 대해 비교하였다. 조선의 경의문은 주로 주자학파의 설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였으며, 자신의 설은 내세우지 않은 채 선유들의 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팔고문은 주자설을 위주로 하였으나 이를 문장 속에 간접적으로 녹여냈으며, 후기로 갈수록 주자설 의존도가 점차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건륭제 이후의 답안에서 古註를 근거로 하여 주자설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자신만의 의견을 개진하는 답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답안들이 시관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모범 답안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19세기 이후에도 여전히 주자설을 엄혹히 견지했던 조선시대 과장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과거(科擧), 경의문(經義文), 사서의(四書疑), 오경의(五經義), 팔고문(八股文)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3854)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E-mail : bacaaltto@korea.ac.kr

## 1. 들어가며

중국의 과거제도는 시험이라는 공정한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개방적인’ 사고로 시작하였으나 응시자들을 극도로 ‘폐쇄적인’ 사고에 갇히게 만든 채 쓸쓸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인재 선발에 있어 추천이나 세습의 방식이 아닌 試取를 통한다는 발상은 전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도였다. 그러나 科文만을 익히며 평생을 과거 공부에만 매달리는 과거 낭인을 대량 양산하고, 합격한 후에는 전혀 쓸모없는 공부만 되어 버리는 시험 합격만을 위한 학습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과거제는 실로 그 명암이 뚜렷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과거제에 많은 영향을 받은 한국의 과거에서도 그대로 보이는 수순이었다. 後周人 雙冀의 건의로 958년 처음 과거제가 고려 시대에 시행된 이후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나름의 방식으로 정착·변화·발전을 이어갔으나 온갖 문제점과 비판 의식 속에 결국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기에 이른다.

이처럼 많은 점에서 닮아 있는 양국의 과거제도이기에, 한국의 과거제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의 그것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이다. 다만, 그간의 연구는 한국 과거제도의 제도사 및 과문의 형식에 대해 중국의 사료를 통해 그 기원을 유추해보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양국 과문의 답안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은 이점에 착안하여 한·중 양국의 동일 문체의 과문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하며 그 시발점을 經義文<sup>1)</sup>으로 삼고자 한다. 그 이유

1) 본래 經義文은 송대 과거에서 經義 시험의 답안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나, 본 논문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한·중 양국 과거에서 經義로 시험했던 과목의 답안을 종합하여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科學에서 經學을 시험하는 과목은 문장의 제술 능력을 평가하는 이른바 詞科 과목과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며 과거 시험이 폐지될 때까지 그 명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시제 출제 및 답안 작성의 제한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과목이기도 하다.

양국 경의문에 쏟아진 여러가지 비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程·朱의 해설을 위주로 답안을 작성해야 했던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를 과거의 程式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조선시대의 경의문에는 이처럼 정해진 규식은 없었으나 실제 답안의 대부분은 정·주자의 설로 채워졌다.<sup>2)</sup> 이는 양국에서 經義 시험이 과거에 도입되고 제술 시험의 형태로 굳어진 이후 폐지될 때까지 일관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인 중국 청대를 기점으로 하여 중국에서는 과거 시험의 답안에서 古註를 통한 고증적 사실이 빈번하게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과장에도 나타나게 되어, 주자의 주석을 근거로 답안을 작성해야 했던 규정이 점차 완화되었다고 보는 견해<sup>3)</sup>가 있다. 그리고 청대 후기에 이르면, 향시에서 주자의 주석이 아닌 다른 설을 내세운 시관과 응시자의 사례를 소개한 사례<sup>4)</sup> 또한 있다.

이처럼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변화의 양상을 청대 과문의 실제적인 예

2) 윤선영(2020), 368면 참조.

3) 청대 학자 梁章鉅는 주자의 주석을 따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주자가 『집주』 등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한 설을 보충하거나, 古註에서 근거할 만한 것이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였다. <梁章鉅 撰, 『制義叢話』 권13, 1면 참조>

4) 일본의 水上雅晴은 1786년(건륭 51) 강남 향시에서 『論語』 『鄉黨』의 <過位色勃> 장을 출제하며 主考官 江永의 『鄉黨圖考』의 설을 참고한 점, 1818년(가경 23) 점강 향시에서 毛詩의 공영달 소를 인용한 답안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명물·제도를 고증한 책이 향·회에서 가장 중요한 초장의 제1道에 쓰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초장은 程·朱의 이학을 기본으로 성인의 의리를 해명하는 장이었다고 하는 그동안의 통념에서 벗어난 사례라고 보았다. <水上雅晴(2011), 38면 참조>

에서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기인 조선시대의 답안 또한 이러한 흐름을 따랐는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17세기 이후 한·중 양국 경의 시험의 답안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청대 과거제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바람과 조선 후기의 과문 또한 그 궤를 같이 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양국 과거의 경의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경의문은 1736년 건륭제의 명으로 方苞(1668~1749)가 편찬한 팔고문 선집인 『欽定四書文』 속 명·청대 팔고문을 중심으로 하고 이와 더불어 『制義叢話』 등 팔고문 관련 문헌과 청대 학자들의 개인 문집을 참고하였다. 조선의 경의문은 試券, 科文集, 개인 문집 등에서 수집한 조선시대 四書疑·五經義 과목의 답안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양국 경의문의 실제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며, 경문 속 동일한 구절을 시제로 한 양국의 답안을 비교해봄으로써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주자설에 대한 의존도가 변화하는 양상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 2. 한·중 과거제에서 經義 시험의 역사

본 단락에서는 양국 경의문의 답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선제적 연구로 한국과 중국의 과거제에서 경의를 시험하는 과목의 역사를 간단히 약술하고 양국의 경의 시험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차별적인 지점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해보고자 한다.

## 1) 중국과 한국의 경의 시험

중국의 경의 시험은 唐代 明經科의 帖經과 墨義로 시작하여 宋代에 이르러 王安石의 新法 개혁으로 여러 변화를 겪게 된다. 이후 경서에서 한 문장이나 단락을 뽑아 수험생에게 그 정신과 요지를 의론문의 형식으로 밝히게 한 四書義와 五經義 과목을 시험하였다. 元代는 역사적으로 100여 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기였지만, 과거사로 보자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四書에 한해 經疑 2문제로 시험하며, 程·朱자의 註疏를 따라 답안을 작성하도록 규정<sup>5)</sup>하였는데, 이는 곧 조선시대의 四書疑 시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후 明·清代의 八股文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명대 초기와 청대 乾·嘉 시기에 간혹 五經에서 출제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四書에서 출제되었다. 팔고문은 심한 형식적 제약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 이는 송대 경의문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다 보니 응시생들이 보다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한 출로로 수사적인 기교 등 형식적 측면에 치중한 점이 팔고문의 작법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청대의 학자 方苞는 팔고문이 명대에 시작되어 전성기를 맞았다가 隆慶·萬曆 년간에 쇠락기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청대에 새롭게 다시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乾隆帝(재위 1735~1795)는 방포에게 팔고문 선집인 『흠정사서문』의 편찬을 지시하기에 이른다.<sup>6)</sup>

당대의 첩경·목의부터 송대의 經義文, 명·청대의 八股文에 이르기까지 經義 시험의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되었고 존재에 관한 논쟁 또한 지속되었다.<sup>7)</sup> 그러나 경전에 밝은 정도[明經]를 시험하여 나라의 인재를 선발한다는

5) 『元史』 권81, 「選舉(一)」, “漢人南人第一場明經經疑二問, 大學論語孟子中庸內出題, 並用朱氏章句集註, 復以己意結之, 限三百字以上.”

6) 왕카이푸 지음, 김효민 옮김(2015), 104~105면.

기본적인 기조는 1902년 팔고문이 폐지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국의 경의 시험은 고려시대 명경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때에는 사서보다 오경이 중시되었다. 이후 『四書集註』가 보급되면서 과거 시험에서도 사서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조선시대 생원시 시험 과목의 성립과 실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조선시대의 생원시에서는 四書疑와 五經義를 시험 보았고 문과 초시에서는 오경의와 사서의, 論 가운데 2편을 뽑아 시험 보다가 이후 四書疑 1편과 논 1편을 시험 보았다.

조선시대의 경의문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었으나, 몇몇 학자가 중국 경의문의 정식을 설명한 글을 문집에 실고 있을 때(8)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인 李學達(1770~1835)의 『洛下生集』을 보면, 元代 과거의 정식을 기술하며 그 小註에 ‘지금의 문과 초시 및 表·策·義·疑 등의 문체는 아마도 이를 근본으로 한다.’고 첨언하였다.<sup>9)</sup> 이러한 점을 볼 때 조선시대의 답안 또한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정·주자의 설을 위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기조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四書疑와 五經義 또한 시험이 실시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지식인들의 폐지 여론<sup>10)</sup>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보다 나은 대안이 없이 법전에 명시된 선대의 제도를 함부로 폐지할 수 없다는 분위기로 인해 경의 시험

7) 이는 왕카이푸 지음, 김효민 옮김(2015), 『9.명청 조정에서 벌어진 팔고취사제 존폐 논쟁』, 『12.명청 문인학자들의 팔고문 비판』; 金諍 著, 김효민 옮김(2003), 『6.청초 팔고문 존폐에 관한 논쟁과 시첩시』에 자세하다.

8) 이 밖에도 李圭景(1788~?)의 『五洲衍文長箋散稿』 『經典總說』 등을 보면 元代 과거의 정식을 설명한 글을 볼 수 있다.

9) 李學達, 『洛下生集』 20책, 『東事日知·科舉程式』, “今東堂三場及表策義疑等文體, 蓋本于此.”

10) 조선 후기 학자인 芝峯 李晔光(1563~1628), 無名子 尹楹(1741~1826), 楚亭 朴齊家(1750~1805) 등은 傳寫의 문제 및 시제 출제의 한정성, 사서 학습의 폐습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疑·義 과목을 비판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윤선영(2019), 『II-2, ‘四書疑에 대한 비판』에 자세하다.

은 특별한 부침없이 실시되었다. 결국 문과에서 폐지된 五經義와는 달리 四書疑는 1894년 과거 폐지시까지 문과 초시의 과목으로 존속하였다.

## 2) 양국 경의 시험의 공통점

이상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경의 시험의 제도사를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이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로 비추어 볼 때, 양국의 경의 시험은 여러 부분에서 공통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진사과에 비해 명경과의 위상이 낮았던 풍조를 들 수 있다. 양국의 과거에서 명경으로 선발된 관리들은 진사과에 합격한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기 일쑤였다.<sup>11)</sup> 『南部新書』를 보면 唐文宗은 명경과로 합격한 자들의 수준에 대해 재상과 이야기하며, 경문과 주소를 읽을 줄만 알고 경문의 대지를 모른다면 앵무새가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sup>12)</sup>고 말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명경과는 비슷한 인식으로 치부되었는데, 진사시에 합격한 이력이 없는 茶山 丁若鏞(1762~1836)이 자신을 經義進士라고 부른 일화<sup>13)</sup> 또한 유명하다. 명경과를 천시했던 양국의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鄉試(初試)와 會試(覆試)의 첫 장에서 시험한 점이다. 四書疑는 조선 쉰 시기 소과 생원시의 초시와 복시 및 문과 초시의 초장에서 시험하였다. 五經義 또한 이와 같았으나, 후에 문과 초시에서는 폐지되었

11) 『승정원일기』 정조 8년(1784) 3월 21일 기사. “宋語曰, 焚香取進士, 曠目待明經. 王鑿制科議曰, 明經雖近正, 而士之拙者爲之, 詞賦雖近浮艷, 而士之高明者爲之. 由此觀之, 貴文詞而賤明經, 非今斯今.”

12) 『南部新書』 권2, “太和申上謂宰臣曰, 明經會義否? 宰臣曰, 明經只念經疏不會經義. 帝曰, 只念經疏, 何異鸚鵡能言?”

13) 丁若鏞, 『與猶堂全書』 시문집 권19, 「與尹畏心永僖」, “旣而竊經義進士, 徙寓樓山(會賢坊)則慨然自咎曰, 名之曰經義進士, 而不讀周易乎?”

다. 중국의 경의문은 각 시대에 따라 시험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명·청시대에는 殿試 이전 단계까지, 즉 童試-院試-鄉試-會試에서 고시되었다. 향시는 조선시대 생원시의 초시를 의미하는데, 명·청대에는 향시 이전에 童試와 院試가 있었으며 당시 또한 縣試-府試의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향시와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 즉, 명·청시대의 향·회시는 조선시대의 문과 초·복시와 같은 단계로 볼 수 있기에, 문과 초장까지만 고시한 조선시대에 비해 더 높은 단계까지 경의를 시험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시험 단계의 첫 번째에서 경의 과목을 고시했다는 점과, 이미 합격한 후 순위를 매기는 殿試 이전 단계까지 고시되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는 경의 과목이 과거 시험의 가장 첫 단추로써 가지는 기초·기본의 의미와, 다음 단계의 진출을 결정 짓는 중요한 시험이라는 양단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명·청대의 과거제도를 다른 말로 八股取士라고 부른 점에도 그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양국의 과거 시험 단계와 각 단계에 고시되었던 경의 과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명·청대와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 단계와 經義 과목 고시 여부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명·청	童試(縣試-府試)	院試	鄉試	會試	殿試
	四書文, 五經文(청대 초기까지)		사서문, 오경문(논, 경사책 등 중 1)		X
조선	생·진시 초시	생·진시 복시	문과 초시	문과 복시	문과 전시
	생원시 - 四書疑, 五經義 후에 四經義(春秋 폐지)	초시와 동일	초장: 四書疑, 五經義, 論 중 2 / 후에 사서의, 논(五經義는 폐지)	X (식년시 초장 - 七書講)	X

세 번째로 五經보다는 四書에서 더욱 많이 출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소과 생원시에서는 四書疑와 五經義 가운데 각기 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권의 原編에는 사서의가, 裨編에는 오경의가 기록되어 있어, 오경의는 구색 맞추기용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문과 초시에서도 四書疑 과목만이 쏠시기 동안 폐지되지 않고 출제되었다. 팔고문 또한 四書文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본적으로 四書에서 출제하였다. 다만 명대~청대 건륭제 이전에는 五經에서 간혹 출제하기도 하였다. 사서에서 주로 출제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자가 四書を 제정한 이후 사서가 중시되었던 사회적 분위기 및 五經을 제대로 이해하는 응시자가 적어 비교적 대비가 수월했던 四書を 선호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주자의 설을 위주로 답안을 작성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서 서술한 양국 경의 시험의 역사와 정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장 주요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술하였듯이, 청대 건·가기(건륭제: 재위 1736~1795, 가경제: 재위 1796~1820) 이후의 팔고문에서 이러한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처럼 양국의 경의 시험은 상당히 닮아 있는 모습으로 여러 존폐 논쟁 속에서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왔다. 앞선 논의들을 통해 양국 경의문의 답안이 주자설을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가장 큰 공통점이자 후기로 가면서 차이점이 발생하는 지점임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그 다른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의 경의문이 어떠한 방식으로 주자의 설을 인용하였는지 과문의 실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3. 조선의 疑·義와 명·청대 팔고문의 주자설 인용 방식

양국의 경의문은 주자의 설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용하여 답안을 작성했을까? 우선 조선시대의 경의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1814년 式年監試初試 慶尙右道에서 『논어』 <先進於禮樂>章에 관해 출제<sup>14)</sup>된 四書疑의 답안들이다. 당시의 유생 宋欽明(1790~1840)과 安允迪(1783~?), 權啓夏(1790~?)의 답안 일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宋欽明】대답합니다. 아! 野人은 質이 지나친 것을 일컬음이 아니겠습니까? 君子는 文이 지나친 것을 일컬음이 아니겠습니까? **文이 質을 앞서**는 것은 質이 文을 앞서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군자를 따르지 않고 반드시 야인을 따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중략… 다만 선유들의 논변을 보건데, 胡氏가 이른바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吾從周]’고 한 것이 어찌 부자께서 質을 숭상하는 뜻을 발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饒氏가 이른바 ‘검소함을 숭상한다[尙儉]’고 한 것이 어찌 **文과 質이 마땅함을 얻었다**는 뜻을 추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삼가 대답합니다.<sup>15)</sup>

【權啓夏】대답합니다. 아! 일찍이 李彦平의 巽巖記에서 말하기를, ‘예악이 알맞음을 얻으면 야인의 실수가 없는 것이요, 예악이 마땅함을 잃으면 군자의 실질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선유께서 이 장의 의미에 대해 논변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책에 산출되어 있는 것 가운데 살펴보면 ‘文과 質이 예악에서 마땅함을 얻었다’고 한 것은 胡云峯의 설이요, ‘알맞음을 얻어

14) 이때의 시제는 『問. “子曰, 先進於禮樂, 野人也, 後進於禮樂, 君子也. 如用之, 則吾從先進.” 古今之禮樂一也, 而於先進則謂之以野人, 於後進則謂之以君子者, 何歟? 夫子之不從君子, 而必從野人者, 其義可得聞歟?』였다.

15) 『臨軒功令』 20책, “對. 於戲! 野人是質過之稱耶? 君子是文過之稱耶? **文之過質**不若質之過文, 故不從其君子, 而必從野人也. …… 第觀先儒論辯, 則胡氏所謂吾從周者, 何莫非發明夫子尙質之旨乎? 饒氏所謂尙儉者, 何莫非推明**文質得宜**之義乎? 吁! 謹對.”

저절로 촌스러운 폐습이 없다'고 한 것은 眞西山의 설입니다.<sup>16)</sup>

【安允迪】아! 오늘날의 예악은 곧 옛날의 예악이나 **주나라 말엽에는 문이 질을 앞서는 폐단이 있었던 까닭에 선진의 예악을 도리어 질박하다 이르며** 야인이라 여기고, 후진의 예악을 **문질이 잘 조화되었다고 이르며** 군자라 여깁니다. …(중략)… 이 까닭에 朱夫子께서는 거문고 소리의 雍容平淡함을 선진에 비유하였고, 繁碎玩弄함을 후진의 군자에 비유하였습니다.<sup>17)</sup> …(중략)… 여러 책에 풀이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순박하여 질이 앞선다[淳朴而質勝]’는 것은 주부자의 설이요, ‘문이 앞서 문체가 성대하다[文勝而郁郁]’는 것은 호운봉의 설입니다.<sup>18)</sup>

위는 <선진어예악>장과 관련하여 고금의 예악이 한결같은데, 이를 군자와 야인으로 나누어 부르고 부자께서 야인을 따르겠다고 말하신 의미를 묻은 것에 대해 각기 서술한 답안들이다.

한눈에 보아도 집주의 설을 그대로 가져오거나(본문에 강조 표시), 『사서대전』을 비롯한 주자학파의 여러 설들을 빈번히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답안에는 胡炳文(1250~1333), 饒魯(1193~1264), 李衡(1100~1178),

16)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제공, (보물-權機宗家古文書-試券), “對. 於戲! 嘗觀李彥平巽巖記曰, 禮樂得中而無野之失, 禮樂失宜而無君子之實. …… 先儒之以此義論卜者, 多矣. 試以散出於諸書中者觀之, 有曰文質得宜禮樂者, 胡云峯之說也, 有曰得中自無野蔽者, 眞西山之說也.”

17) 『朱子語類』 권39, “禮只是一箇, 禮用得自不同, 如升降揖遜, 古人只是誠實行許多威儀, 後人便忒好看, 古人只正容謹節, 後人便近於巧言令色, 如古樂雖不可得而見, 只如誠實底人彈琴, 便雍容平淡自是好聽, 若弄手弄脚撰出無限, 不好底聲音, 只是繁碎耳.”

18) 한국고문서자료관 제공, 『고문서집성43 - 안동 갈전 순흥안씨편』, 8.시문류, (4)시권. “噫! 今之禮樂, 卽古之禮樂, 而周末之弊文勝其質, 故以先進之禮樂, 而反謂質朴而以爲野人矣, 以後進之禮樂, 而謂之彬彬而以爲君子矣. …… 是以朱夫子琴聲之雍容平淡比之於先進, 繁碎玩弄比之於後進之君子, …… 試以散出於諸書註解者觀之, 有曰淳朴而質勝者, 朱夫子之說也. 有曰文勝而郁郁者, 胡雲峯之說也.”

眞德秀(1178~1235) 등 송·원대 주소기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서술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의 답안들은 과연 어떠할까? 보다 수월한 비교를 위해 위와 동일한 구절에 대해 작성한 청대 학자 熊伯龍(1617~1669)과 張大受(1660~1723)의 답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熊伯龍】 성인께서 세상의 예악을 논한 것을 통해 자신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무릇 야인과 군자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여 그치지 않은 것은 자신을 바르게 하여 감응한 자가 없는 것이니, 선진을 따르겠다고 하신 것은 성인의 책임이 아니라면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중략)… 예악의 규칙은 선진들이 능히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사용하는 때에 당하여 유독 한결같이 敦龐渾厚의 뜻이 그 가운데에 굳게 맺혔다. 지금으로부터 이를 생각하면 일상 생활의 먹고 마시는 바탕을 엄연히 접할 수 있으니 야인이라는 명칭이 여기서부터 귀의되었다. 예악의 규칙은 후진들이 능히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사용하는 때에 당하여 유독 한결같이 豐亨豫大 모습이 그 사이에 유행하였다. 이 시대에도 생겨나 저 都人士들의 풍속이 사뭇 사람들의 뜻과 맞으니 군자라는 명칭이 여기서부터 귀의되었다.<sup>19)</sup>

【張大受】 성인께서 예악의 폐단을 구제하고자 오직 자신이 따르는 바를 결단하였을 따름이다. 대개 예악은 선진의 것이 아니면 따를 만한 것이 없거늘 이에 사람들이 예악을 논한 것이 이와 같으니 장차 군자를 따라야 하겠는가? 차라리 야인을 따를 것이다. …(중략)… 선민들께서 숭상하던 바를 거슬

19) 『欽定四書文』 『本朝四書文』 권5, “聖人於世之論禮樂者, 而以身正之焉。夫野人君子之論, 紛紛而不止者, 無人焉正其身以感之也。從先進者, 非聖人之責而誰責哉? ……禮樂之數, 非先進所能減, 而當其用之時, 獨有一敦龐渾厚之意, 固結於其中。由今思之, 日用飲食之質, 儼乎可接也, 而野人之稱, 由此歸焉。禮樂之數, 非後進所能增, 而當其用之時, 獨有一豐亨豫大之象, 流行於其間。生斯世也, 彼都人士之風, 殊快人意也, 而君子之稱, 由此歸焉。”

러 올라가 이로써 인도하면 큰 예는 반드시 간략하고 큰 악은 반드시 쉬울 것이다. 오히려 인정이 권태로워지고 생각이 떠날까 두려우니 하물며 야인이라고 지목하며 배척함에 있어서라. 말류가 쫓던 바를 거울삼아 이로써 경계하면 예가 치우쳐 멀어지게 되고 악이 지나쳐 흘러가게 된다. 오히려 인정이 이에 물들어 돌이키기 어려울까 두려우니 하물며 군자라고 칭송하며 높임에 있어서라. …(중략)… 내가 선진을 따르고 사람들이 예악을 씬에 일에 따르는 변화로움을 점차 없애고자 하니 이는 大道의 다행이요,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내가 선진을 따르고 사람들이 예악을 씬에 무릇 박략한 구습을 끝내 싫어하니, 이는 世風의 흐름이요, 실로 내가 근심하는 바이다.<sup>20)</sup>

<선진어예악>장에 대한 응백룡과 장대수의 답안 일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성인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까닭을 한 줄로 요약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응백룡은 자신을 바르게 한다[身正, 正其身]는 문구를 채차 사용하였는데 이는 『논어』 「子路」의 구절과 연관시켜 서술한 점을 알 수 있다. 장대수 또한 『예기』 「樂記」의 구절(大禮必簡, 大樂必易)과 『논어집주』에 기록된 程子の 설(禮勝則離, 樂勝則流)을 인용하여 서술하였다. 이처럼 다른 경문을 인용하여 본 구절의 경문을 해석하는 以經解經의 방식을 자주 사용하였고, 주자의 설을 기본 전제로 하여 서술하였으나, 주소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에서 양국의 경의문 일부를 살펴보았다. 조선의 경의문은 선유들의 설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주자설을 기본으로 하고

20) 『欽定四書文』 「本朝四書文」 권5, “聖人救禮樂之弊, 惟決其所從而已. 蓋禮樂非先進無可從也, 乃人之論禮樂若此, 將從其爲君子者耶, 寧從其爲野人者矣. …… 卽邇先民之所尙而導之, 以大禮必簡, 大樂必易, 猶恐人情倦而思去也, 況斥之以野人之目也? 卽鑒末流之所趨而戒之, 以禮勝則離, 樂勝則流, 猶恐人情習而難返也, 況尊之以君子之稱也? …… 吾從先進而人之用禮樂者, 漸去其踵事之華, 是大道之幸也, 非予之力也. 吾從先進而人之用禮樂者, 終厭夫樸畧之舊, 是世風之漓也, 實予之憂也.”

그의 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주자 문인들의 설 및 조선의 주자학자들의 설을 인용하는 방식이었다. 동일한 경문으로 비교하기 위해 四書疑 과목의 답안들을 위주로 예시를 들었으나, 四書疑는 시제에서 이미 정·주자의 설을 신고 있는 경우도 많아, 답안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팔고문과 시제의 형식이 같은 五經義 과목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 경문의 대지를 설명하며 주자학파의 설을 다수 인용한 답안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반면, 중국의 경의문은 주자설을 직접 인용하기보다는 문장 속에 녹여내어 자신의 말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답안 속에 주소가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주석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팔고문의 ‘성현을 대신하여 글을 쓴다[代聖賢立言]’는 기조, 대구를 중요시여긴 엄격한 형식적 제약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조선의 경의문을 살펴보면 자신이 과거 시험 응시자이고 이것이 과거 시험의 답안임을 의미하는 용어들, 예컨대 愚生(응시자 자신)이나 執事, 主司(시관) 등의 용어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팔고문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성현의 입장이 되어 그의 생각을 대신 전한다는 전제하에 글을 작성하므로, 사실상 주소가들의 이름을 일일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八股로 격식화된 제약 속에서 이러한 방식이 문장을 완성하기에 보다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 4. 18세기 후반 이후 주자설 의존도 변화 양상

앞서 살펴보았듯이, 양국의 경의문은 인용 방식에 있어 약간의 차이점은 보였으나 엄격한 尊朱子의 분위기 속에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렇다면 이러한 존주자적 양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무런 변화 없이 지속되었을까? 여기에서는 조선 중기와 후기의 경의문, 명대와 청대의 팔고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답안 속의 주자설 의존도에 과연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우선 조선시대의 경의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1633년 식년 감시 복시에서 출제된 『주역』 『繫辭上傳』의 <一陰一陽之謂道>에 대한 宋時烈(1607~1689)의 답안 일부이다.

그대는 理氣의 설을 아는가? 일찍이 듣건대, 周子의 말에 ‘太極이 動해서 陽이 되고, 靜해서 陰이 되니, 태극은 本然의 묘함이고, 動靜은 작용의 기틀이다.’라고 하였다. …(중략)… 대개 ‘理通氣局’의 네 글자는 실로 이것을 발명한 것이다. …(중략)… ‘~이 되는 까닭이다[所以]’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 朱夫子께서 일찍이 말하였는데, 이는 쓸데없는 말이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한 번 음이 되고서 한 번 양이 될 수 없는 것은 道가 아니요, 한 번 양이 되고서 한 번 음이 될 수 없는 것 또한 道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미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었다고 하면 이는 음양을 관통해서 말한 것이니, 또한 道가 음양을 관통했다는 것은 氣인가 道인가? 道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면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된다는 반 마디의 말에서 道體의 묘가 이미 분명해진다. 비록 ‘이것을 도라고 이른다[之謂道]’는 세 글자를 밑에 쓰지 않아도 그 道가 됨을 볼 수 있으니 다른 말을 어찌 더할 것이 있겠는가? …(중략)… 그렇다면 周子가 이른바 ‘動靜이 서로 그 뿌리가 된다[動靜互爲其根]’고 한 것과 邵子가 이른바 ‘양의母는 음이요, 음의 父는 양이다[陽母陰陰父陽]’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인가? …(중략)… 程子가 말하기를 ‘動과 靜에는 끝이 없고, 음과 양에는 시초가 없다.’고 하였으니, …(중략)… 그러므로 邵子의 시에, ‘하늘은 하나에서 조화가 나누어지고 사람은 마음에서 경륜을 일으킨다 [天向一中分造化, 人於心上起經綸]’고 하였다. …(중략)… 때문에 孟子께서 말하기를 ‘마음을 기쁨에 있어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고 하였으니, 욕심을 적게 하는 도리는 또한 敬의 마음에 있는 까닭에 程子께서 敬을 중시하신 것이다.<sup>21)</sup>

송시열은 위 답안에서 혹자가 묻고 자신이 대답하는 형식을 빌어 경문의 대지를 밝히고 있다. 그는 이기론에 대해 설명하며, 주돈이의 『태극도설』과 주자의 『태극도설해』를 중심으로 하고 조선의 대표적 주자학자인 栗谷 李珣(1536~1584)의 理通氣局論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주자와 정자의 설을 인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으며, 북송대 학자인 邵雍의 설과 시까지 인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맹자』의 본문과 정자의 학설을 부연하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그는 이 답안으로 생원시에서 壯元을 차지하였다.

그의 답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성리학자인 주돈이의 설을 시작으로 다양한 범주의 학자들의 설을 싣고 있으며, 무조건 주자의 설을 찬양하기 보다는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서술했다는 점이다. 그는 『주자어류』에서 음양의 도리를 理와 器의 관계로 설명한 글 속에 “理는 단지 器에 있으니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이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도라고 이르는 까닭이다[所以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한 말<sup>22)</sup>을 斷章取義하며 여기에서의 ‘所以’ 두 글자는 군더더기의 말이라고

21) 宋時烈, 『宋子大全』 권136, 「一陰一陽之謂道(癸酉科義)」, “子知理氣之說乎? 嘗聞周子之言曰,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 太極者, 本然之妙也, 動靜者, 所乘之機也. …… 蓋理通氣局四字, 實所以發明乎此也. …… 曰所以二字, 朱夫子蓋嘗言之, 而是亦臆語也, 何也? 一陰而不能一陽者非道也, 一陽而不能一陰者又非道也. 而今既曰一陰一陽則是貴陰陽而言也, 且道貴陰陽者, 是氣耶道耶? 不可謂非道則一陰一陽半辭之間, 道體之妙已躍如矣, 雖不下之謂道三字, 而可見其爲道矣, 尙何待於他說乎? …… 曰然則周子所謂動靜互爲其根, 邵子所謂陽母陰陰父陽者非耶? …… 程子曰動靜無端, 陰陽無始, …… 故邵子之詩曰, ‘天向一中分造化, 人於心上起經綸.’ …… 故孟子曰養心莫善於寡欲, 而寡欲之道, 又在於敬, 故程子每說敬字, 謹義.”

22) 『주자어류』 권77, “器亦道, 道亦器也, 道未嘗離乎器, 道亦只是器之理. 如這交椅是

여겼다. 선유들의 설로 답안의 상당 부분을 채우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9세기의 후기 답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1859년 증광 감시 초시에 응시한 沈驪奎(?~?)의 답안과 1876년 식년 감시 초시 평안도회에 응시한 宋臣穆(?~?)의 답안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심인규의 답안은 『孟子』 「公孫丑」(上)의 <浩然之氣>章과 관련한 시제<sup>23)</sup>에 대해 작성한 것이며, 송신목의 답안은 『書經』 「夏書·禹貢」의 ‘惟木[원문-齒革羽毛惟木] 구절에 대해 작성한 것이다.

【沈驪奎】경문에서 ‘(그 氣가) 義와 道에 配한다[配義與道]’라고 한 것은 氣를 기른 후의 일을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가 모여서 생긴다[集義所生]’라고 한 것은 기를 기르기 시작할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략)… 程·朱의 명확한 논의를 살펴보면 이 장의 의미에 대해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유들의 격언을 참고하면 이 편의 뜻은 거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중략)… 이 때문에 朱文公은 시에서 ‘성인의 말은 오묘한 이치라 무궁한 뜻이니, 깊이 잠심하고 마음을 차분히 하여 스스로 알 따름이네[聖言妙蘊無窮意, 涵泳從容只自知]’라고 하였습니다. 학자들이 성현의 가르침에 대해 진실로 정밀히 사고하고 이치를 이해할 수 있으면 비록 은미한 말과 심오한 뜻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뜻을 밝히는 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또한 聖經과 賢傳에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 있으며, 선유들이 저보다 앞서 이해한 견해가 더욱 자세하고 밝으니 제가 어찌 굳이 여기에 더할 말이 있겠습니까?<sup>24)</sup>

---

器, 可坐便是交椅之理, 人身是器, 語言動作便是人之理, 理只在器上, 理與器未嘗相離, 所以一陰一陽之謂道.”

23) 『崇禎紀元後四己未增廣司馬榜目』(1859), 『問. 孟子曰, “其爲氣也, 配義與道”, 又曰, “是集義所生者”, 由前觀之, 則氣以配義, 由後觀之, 則義以生氣, 前後之論不同, 何歟? 願聞其說.』

【宋臣穆】아! 나무의 수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 ‘惟’라는 하나의 글자로 쉽게 분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략)… 이 장의 뜻에 대해 선유들의 定論이 많이 있습니다. 뜻은 같으나 그 말이 다른 것도 있으며 말은 같으나 뜻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문자만으로 궁구하여 살펴보면 진실로 밝히기 어려운 단서가 되겠지만, 그 요지를 궁구해보면 자연스럽게 얼음이 녹듯 하며 뚜렷하게 전부 밝혀진 듯하여 진실로 막히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중략)… 朱紫陽이 何叔京에게 답한 편지에 금일의 논의를 강론한 바가 있으니 모두 한가지로 귀결되는 설이며, 呂東萊가 蔡季通에게 답한 편지에 이 장의 뜻을 언급한 바가 있으니 마치 부절이 합해지는 듯한 설입니다. 이 두 선생의 말을 들어 主司께서 오늘날 물으신 것을 궁구해보면, 거의 모든 이치를 두루 통달하여 분명치 못한 단서가 결코 없을 것입니다.<sup>25)</sup>

심인규와 송신목은 비록 생원시에 최종 합격하지 못했으나, 위 답안으로 三下의 무난한 성적을 거두었다. 심인규는 『맹자』 <浩然之氣>장에 대해 정자와 주자의 설이 이미 명확하고 선유들의 여러 설을 참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현의 말을 찬탄하는 내용을 담은 주자의 시<sup>26)</sup>를 인용하며 자신의 부족한 뜻을 굳이 더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송신목 또한 『서경』의 惟木 구절을 설명하며 주자가 자신의 문인인 何鏞(1128~1275)에게 보낸

24) 『임헌공령』 61책, “其曰配義與道, 非言養氣之後事乎? 其曰集義所生, 非言養氣之初事乎? …… 觀乎程朱確論, 而此章之義, 不難明矣. 參以先儒之格言, 而此篇之意, 庶可下矣. …… 是以朱文公詩曰, ‘聖言妙蘊無窮意, 涵泳從容只自知’, 學者於聖賢之訓, 苟能精思而理會, 則雖有微辭奧旨, 決無難明之義, 而至於此章之訓, 則又是聖經賢傳之最是明白, 而先儒之先我見得尤爲詳明, 愚何必更爲疊床哉?”

25) 『임헌공령』 23책, “吁! 木不可勝數, 則易不以惟一字弁之乎? …… 此章之旨, 先儒定論, 多矣. 有旨同而語異者, 有語一而旨異者, 究於文字而觀之, 則誠爲難明之端, 究其要, 則怡然氷釋, 渙然縷折, 固無滯礙之端也. …… 朱紫陽答何叔京之書, 有所講論於今日之論, 而有同歸一轍之說, 呂東萊答蔡季通之書, 有所提及於此章之意, 而有若合符節之說. 執此二先生之語, 而究於主司今日之問, 則庶可以曲暢旁通, 而決無含糊之端矣.”

26) 『性理大全書』 권70, 「送林熙之二首」.

편지<sup>27)</sup>와 여조검이 蔡元定(1135~1198)에게 보낸 편지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장의 뜻이 두루 통하고 매우 분명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의 답안을 통해 조선 중기부터 계속된 주자설 존신의 분위기가 여전하였으며, 선유들의 설에 지극히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자신의 목소리는 거의 내지 않은 채 선유의 설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방식의 답안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이후부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의문은 과연 어떠한가? 우선 명대의 문학가인 王鏊(1450~1524)가 『논어』 「顔淵」의 <百姓足, 君孰與不足>장에 대해 작성한 것과 吳寬(1435~1503)이 『논어』 「述而」의 <子在齊聞韶>장에 대해 작성한 팔고문의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王鏊〕 백성이 아래에서 이미 넉넉하면, 임금은 위에서 절로 넉넉해진다. 대개 임금의 넉넉함은 백성에게 달린 것이니, 백성이 이미 넉넉하면 임금이 어찌 홀로 가난한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有若이 君民一體의 뜻을 깊이 말하여 애공에게 (다음과 같이) 고한 것이다. “임금께서 세금을 늘리려는 것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니, 재정을 풍족하게 하고자 한다면 어찌 먼저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진실로 百畝에 徹法을 시행하며 항상 節用愛人의 마음을 지니며, 수확량의 1/10을 거두면서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해 자신만 잘 살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생산한 것에서 세금을 내는 데 곤궁하지 않을 것이며, 백성들이 가진 재물을 모조리 취렴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sup>28)</sup>

27) 朱熹, 『晦庵集』 권40, “惟其敬足以直內, 故其義有以方外, 義集而氣得所養, 則夫喜怒哀樂之發其中節者, 寡矣. 孟子論養吾浩然之氣, 以爲集義所生而繼之曰, 必有事焉, 而勿正心勿忘勿助長也. 蓋又以居敬爲集義之本也, 夫必有事焉者, 敬之謂也.”

28) 『欽定四書文』 「化治四書文」 권3, “民既富於下, 君自富於上. 蓋君之富, 藏於民資也,

【吳寬】 성인께서 주변국에 머무르며 古樂을 들으심에 그것을 **오래도록 배우시고** 그 아름다움을 오로지 칭송한 것이다. 무릇 古樂은 韶樂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 성인께서 이것을 **배우시고** 칭송하신 까닭을 살펴보면 聖樂의 아름다움과 聖心の 진실함을 모두 볼 수 있다. …중략… 그 마음이 음악에 있으면 발분하여 먹는 것을 잊을 정도로 부지런한 지경에 이르고 그 뜻이 옛 것을 좋아하면 종일토록 밥도 먹지 않는 독실함이 있으니, 저 芻豢 따위가 어찌 나의 입을 기쁘게 하기에 족하겠는가? 무릇 그것을 이미 **배우고** 얻는 바가 있으니 칭송하기를 절로 멈출 수 없는 것이다.<sup>29)</sup>

왕오는 위 답안에서 유약이 애공에게 徹法을 권한 이유를 자세히 풀이하고,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늘리려는 애공의 생각을 비판하였다. 백성이 부유하게 되면 임금도 절로 부유하게 된다는 경문의 원론적인 대지를 반복하며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첨언하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거의 『집주』의 설을 바탕에 두고 서술하였는데, 특히 ‘유약이 君民一體의 뜻을 깊이 말하여[有若深言君民一體之意]’라고 한 것은 『집주』의 구절<sup>30)</sup>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오관의 답안 또한 철저하게 주자의 설에 입각하면서도 『논어』의 發憤忘食, 『맹자』의 芻豢, 『예기』의 ‘吾端冕而聽古樂, 則唯恐臥’ 구절 등 다양한 경문을 곳곳에 삽입하여 그 묘미를 더했다. <子在齊聞韶>章은 ‘不圖爲樂

民既富矣, 君豈有獨貧之理哉? 有若深言君民一體之意, 以告哀公. 蓋謂公之加賦, 以用之不足也. 欲足其用, 盍先足其民乎? 誠能百畝而徹, 恒存節用愛人之心, 什一而征, 不爲厲民自養之計, 則民力所出, 不困於征求, 民財所有, 不盡於聚斂.”

29) 『欽定四書文』 『化治四書文』 권2, “聖人寓鄰國而聽古樂, 學之久而專稱其美也. 至夫古樂莫美於韶也, 觀聖人所以學之與所以稱之者, 則聖樂之美, 聖心之誠, 皆可見矣. …… 其心在於樂, 則發憤至於忘食之勤, 其志好乎古, 則終日且有食之篤, 彼芻豢何物, 果足以悅我口耶? 夫既學之而有所得, 則稱之自不能已.”

30) 『論語集註大全』 권12, “公意蓋欲加賦以足用也. …… 民富則君不至獨貧, 民貧則君不能獨富. 有若深言君民一體之意, 以止公之厚斂, 爲人上者, 所宜深念也.”

之至於斯也’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뜻이 확연히 달라지는 구절이다. 송대 학자 黃幹은 이에 대해 제후의 나라인 제나라에서 천자의 음악이 연주된 사실을 안타까워한 내용으로 보았으며<sup>31)</sup>, 주자의 경우는 순임금의 음악이 이처럼 훌륭한 경지에 이를 줄 몰랐다고 찬미한 내용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三月 앞에 ‘學之’ 두 글자가 있다는 『史記』<sup>32)</sup>의 견해를 인정하였다. 즉 순임금의 음악을 오래도록 배우고 난 후에 이를 칭송했다는 의미로 본 것<sup>33)</sup>이다. 오관의 답안 역시 ‘韶樂을 배우고[學之]’라는 표현을 답안에 반복하는 등 집주의 설을 거의 그대로 신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명대 문인 왕오와 오관의 답안은 조선시대의 답안들과 내용면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서술했던 선유들의 설을 인용하는 방식과 문장의 어조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일 따름이었다. 청대 이후의 답안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는지, 아니면 더욱 심화 또는 변화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대 이후의 답안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1774년(건륭 39) 향시에서 작성된 『논어』 『향당』의 <享禮, 有容色>에 대한 管世銘(1738~1798)의 답안 일부이다.

享禮와 禮賓을 겸하여 성인의 안색을 살핀 것이니, 공경함이 넘쳐흘러 조화됨이 있는 것이다. 무릇 빙문하는 의식을 마친 후에 향례를 행하며, 향례로 인해 예빈을 하는 것이 대개 정해진 의식이다. …(중략)… 이로부터 빈이 주인

31) 『論語集解義疏』 권4, “孔子至齊聞齊君奏於韶樂之盛, 而心爲痛傷, 故口忘肉味, 至於一時乃止也. 三月一時也. 何以然也? 齊是無道之君, 而濫奏聖王之樂, 器存人乖, 所以可傷慨也.”

32) 『史記』 『孔子世家』, “與齊太師語樂, 聞韶音, 學之三月, 不知肉味.”

33) 『論語集註大全』 권7, “史記, 三月上有學之二字. 不知肉味, 蓋心一於是而不及乎他也. 曰不意舜之作樂, 至於如此之美, 則有以極其情文之備, 而不覺其歎息之深也. 蓋非聖人, 不足以及此. ○范氏曰, 韶盡美又盡善, 樂之無以加此也, 故學之三月不知肉味, 而歎美之如此, 誠之至, 感之深也.”

에게 國君의 예물을 바치면 향례가 있었으며, 주인이 빈객의 예물을 받고 나면 예빈이 있게 되었다. 寡君께서 넉넉지 않지만 복숭아로 던져주면 오얏으로 보답하는 정성을 부치시어 명을 받들고 말씀을 고한다. 애초부터 그 이름을 존대하여 國體를 떠벌이지 않는다. 이로부터 예물을 진상하는 것을 享이라고 이르니, 이는 우방국을 높여 자신들의 일을 낮추는 것이다. 敝邑이 비록 변변치 않으나 박잎을 따다 삶고 데치는 뜻을 보태어 술잔을 가득 채우고 좌석을 마련한다. 감히 평소 먹는 음식을 올려 귀한 손님을 욱보이지 않는다. 이로부터 공경하는 예식으로 대접하는 것을 禮라고 이르니, 이는 중요한 손님을 흠향하여 신명으로 여기는 것이다.<sup>34)</sup>

管世銘의 字는 緘若이며 號는 韞山이다. 위 답안은 그의 팔고문 모음집인 『韞山堂時文』에 실려있는 것으로, 해당 글에 ‘甲午闈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목이란, 청대의 향시 또는 회시에 합격한 자들의 답안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글을 선별하여 책으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명대에는 이를 小錄이라고 불렀다. 즉, 관세명의 이 답안이 당시에 훌륭한 성적과 좋은 평가<sup>35)</sup>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주지는 ‘享禮, 有容色’에서의 享禮를 ‘연향하는 예식’으로 보아, 사신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상징적 예물인 규벽을 바친 후 실질적으로 가지고 온 예물을 조정에 펼쳐 놓는 일을 말한다고 풀이<sup>36)</sup>하였다. 공자가 제후국에

34) 管世銘, 『韞山堂時文(初集)』 「享禮有容色」, “兼享與禮賓以觀聖人之色, 有敬溢爲和者焉。夫聘畢而享, 因享而禮賓, 蓋成典也。……自是賓致君之獻於主人, 則有享焉, 主人既受賓之事, 則有禮賓焉。寡君無腆, 聊寄木桃投報之誠, 而受命陳詞, 初無取尊大其名, 以張國體, 自夫薦幣, 而謂之享也, 所以重友邦, 而降事之也。敝邑雖羸, 竊附瓠葉熟燔之義, 而盈樽設几, 復不敢常褻其味, 以忝嘉賓, 由其受禮, 而謂之禮也, 所以欽上客, 而神明之也。”

35) 이 글의 말미에 당시 시관들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座主 董蔗林은 禮자에 대한 해석이 세속의 해석과는 달라 부득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하였으며, 劉雲房은 享禮를 두 절로 분속한 것은 곧 경문을 해설함에 도움이 되기 좋다고 하였다. <管世銘, 『韞山堂時文(初集)』 「享禮有容色」.>

방문하여 예물을 바치는 한 가지 일로 한정된 것이다. 그러나 관세명은 이와는 달리 享禮를 享禮와 禮賓의 두 가지 일로 나누어 풀이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예물을 바치는 일과 빈으로써 대접을 받을 때의 상황을 포함하게 된다.

관세명은 이에 대한 근거로 『儀禮』 「聘禮」의 여러 구절을 예로 들고 있다. 「빙례」의 ‘빈은 석의를 드러내고 束帛을 받들어 그 위에 벽옥을 올려 놓고서 향례를 행한다[賓裼, 奉束帛加璧享]’는 구절과 ‘향례를 행할 때는 기색을 펴고 용모를 장중하게 한다[及享, 發氣焉盈容]’는 구절을 보면 享자 만을 쓰고 禮자를 붙이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빙례」의 구절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향례를 마치고 임금을 사사로이 뵈기[私覲] 전에 禮賓의 절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禮가 禮賓을 가리키는 구절들과, 享과 禮를 나누어 서술한 경문<sup>37)</sup>들로 볼 때 享禮를 享禮와 禮賓으로 나누어 본 관세명의 해설은 비교적 그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예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1834년(도광 14) 강남 향시에서 작성된 『논어』 「향당」의 <執圭, 鞠躬如也>장에 대한 陳立(1809~1869)의 답안 일부이다.

옛날에는 鞠躬을 몸을 굽힌다[曲躬]는 의미로 보지 않았으며, 鞠躬은 일설에 鞠軀라고도 하였으니 공경하고 조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如’라고 한 것은 모두 형상을 비유한 말이니, 몸을 이미 굽혔다면 그저 鞠躬이라고만 말하면 될 것을, 어찌 ‘如鞠躬’이라고 했겠는가? ‘鞠躬如’라는 것은 ‘蹠踏如’와 같은 말일 따름이다. …(중략)… 그런즉 ‘上如揖’은 ‘올라가서 읍한다[上而揖]’의 의미지 규를 잡고 있는 손의 위치가 읍할 때의 정도라는 의미가 아니며, ‘下如

36) 『論語集註大全』 권10, “享獻也. 既聘而享, 用圭璧, 有庭實.”

37) 『의례』 「빙례」, “若君不見, 使大夫受. 自下聽命, 自西階升受, 負右房而立. 賓降亦降. 不禮.”; “小聘曰問. 不享, 有獻, 不及夫人. 主人不筵几, 不禮.” <『韞山堂時文(初集)』 「享禮有容色」.>

授'는 '빠른 걸음으로 예물을 준다[趨而授]'의 의미이지 손의 위치가 물건을 줄 때의 정도라는 의미가 아니다. '下'자는 '趨'로 읽어야 하며, '如' 자는 '而'로 읽어야 하니 古訓이 진실로 이와 같을 따름이다. 그렇지 않다면 國君의 기물을 다룸에 있어 平衡하게 해야 하거늘 어찌 위로 하고 아래로 함이 있겠으며, 또한 읊을 하고 예물을 줄 때의 위치는 그 높낮이가 현저히 다르거늘 어찌 읊을 하는 듯이 하고 예물을 주는 것과 같이 하면서 평형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sup>38)</sup>

진립의 자는 卓人 또는 默齋이며, 小學 및 公羊學에 밝은 것으로 이름난 청대의 경학자이다. 그의 科宦 이력을 살펴보면 그가 1834년에 舉人이 되었으며 1841년에 進士가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는 위의 답안으로 강남 향사에서 합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답안은 그의 문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제의총화』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는 <執圭, 鞠躬如也>장과 관련한 여러 주소가들의 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혔다.

진립은 우선 '如'자를 굳이 붙인 이유에 주목하며 몸을 굽힐 듯이 공경히 한다는 비유의 의미이지 실제로 몸을 굽힌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주자가 上자와 下자를 규를 잡은 손의 위치로 해석한 것<sup>39)</sup>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며 읊을 할 때와 물건을 줄 때의 높낮이가 현저히 다르므로 이렇게 하면서 기물을 평형하게 해야 한다고 한 말은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上如揖에 대해서는 『의례』의 구절을 근거로 하여<sup>40)</sup> '上而揖'

38) 『제의총화』 권13, “古未有以鞠躬爲曲躬者, 鞠躬一曰鞠躬, 敬謹之意也. 且如之云者, 皆有所比象之辭, 若躬既曲矣, 則直謂之鞠躬可也, 安得謂之如鞠躬乎? 鞠躬如者, 猶言踧踏如爾. …(중략)… 然則上如揖者, 上而揖, 非子之上其手也, 下如手者, 趨而授, 非子之下其手也. 下讀爲趨, 如讀爲而, 古訓固如是耳. 不然執國君之器則平衡, 烏有所謂上下者, 且揖之與授顯判低昂, 烏有如揖如授而猶得曰平衡者?”

39) 주자는 규를 잡음에 평형하게 하고 손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여 그 위치가 아무리 높아도 읊할 때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며 낮아도 물건을 줄 때보다 더 낮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의 의미로 보았으며, 下如授 또한 『魯論』에서 이 구절의 ‘下’를 ‘趨’로 읽었음을 서술한 『경전석례』의 주<sup>41)</sup>를 근거로 들었다. 주자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경문과 고주에 근거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관세명과 진립의 답안을 통해 주자의 해설과 부합되지 않는 견해 또한 수용되었던 청대 과장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응시자들은 선유의 설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주자설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직접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답안들이 당시의 위목으로 선별되었다는 점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주자설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근거가 명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다면, 시관들 또한 열린 사고로 평가했음을 보여주는 일면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청대 이후의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는 여러 예시들을 개인 문집 및 참고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復初齋 翁方綱(1733~1818)은 1752년(건륭17)부터 1768년(건륭33)까지 자신이 지은 팔고문을 모아 1787년에 『復初齋時文』을 간행하였는데, 이 책에 약 40여 편의 팔고문을 실고 있다. 그는 『논어』 「雍也」의 “觚不觚, 觚哉觚哉”장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주자설에 근본하고 있으나, ‘觚’자의 연원이 『前漢書』 ‘六觚’에서 근원한 것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 자세히 풀이하였다.<sup>42)</sup> 이는觚를 그릇 가운데 모난 것으로 간략하게 해설<sup>43)</sup>한 주자설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한 것이다.

40) 『의례』 「빙례」, “厥明, 訝賓于館. 賓皮弁, 聘至于朝, 賓入于次. …… 公揖入, 每門·每曲揖. 及廟門, 公揖入, 立于中庭. 賓立接西塾. 几筵既設, 擯者出請命. 賈人東面坐, 啓纘, 取圭, 垂纚, 不起而授上介. 上介不襲, 執圭屈纚授賓. 賓襲執圭. 擯者入告, 出辭玉, 納賓. 賓入門左. 介皆入門左, 北面, 西上. 三揖至于階, 三讓. 公升二等, 賓升, 西楹西, 東面. …… 聘于夫人用璋, 享用琮, 如初禮. 若有言, 則以束帛, 如享禮. 擯者出請事, 賓告事畢.”

41) 『경전석례』 권24, “下如, 魯讀下爲趨, 今從古.”

42) 『전한서』 권21, “其算法用竹, 徑一分, 長六寸, 二百七十一枚而成六觚, 爲一握.”

또한 『四書揅餘說』의 저자로도 알려진 청대의 문인 寅谷 曹之升은 『시경』 「淇奥」의 「瞻彼淇澳, 綠竹~」에 대해 淇와 奥를 모두 물의 이름으로, 綠竹을 모두 풀의 이름으로 풀이한 답안을 제출하였다. 그는 『後漢書』 「郡國志」에서 『博物記』를 인용하여 주해한 것과 『毛詩正義』에서 陸機의 설을 인용한 것<sup>44)</sup>, 그리고 『爾雅』에서 綠을 王芻로 풀이한 설<sup>45)</sup> 등을 근거로 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주자가 淇는 淇水, 澳는 구석 모퉁이, 綠은 푸른 색이라고 한 해설<sup>46)</sup>과는 다른 것이다. 그는 또한 주자가 『采綠』에서는 綠을 왕추로 풀이하였는데, 「淇奥」에서는 달리 풀이하고 있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시의 시관이었던 邵晉涵(1743~1796)은 조지승의 이러한 二水, 二草설에 대해 ‘자연스러운 대구를 이루었다[天然對仗]’라고 평하였다.<sup>47)</sup>

이상의 예시들을 통해 청대 이후에 작성된 경의문의 답안에서 보이는 탈주자적 견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양상이 명대에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명대의 학자인 錢福(錢福, 1461~1504)은 『논어』 「陽貨」의 <三年喪>장에 대해 삼년상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뿐만이 아니라, 適孫으로써 祖의 상에, 또는 長子나 妻에 대하여 모두 삼년상을 치렀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周나라 太子 壽가 죽고 穆后가 죽자 叔向이 “왕께서 일년에 삼년상을 두 번 당하였다”라고 한 『좌전』의 구절<sup>48)</sup>을 들었다. 이는 주자가 『집주』에서 삼년상을 父母之喪으로 한정하고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보충하여 밝힌 것이다.<sup>49)</sup>

43) 『論語集註大全』 권6, “觚, 棱也, 或曰酒器, 或曰木簡, 皆器之有棱者也.”

44) 『後漢書』 권29, “博物記曰, 有澳水流入淇水.”; 『毛詩正義』, “淇澳二水名.”

45) 『爾雅註疏』 권8, “菴王芻, 注菴蓐也.”

46) 『詩經集傳』 권3, 「淇奥」, “淇, 水名. 奥, 隅也. 綠, 色也.”; 『詩經集傳』 권15, 「采綠」, “綠, 王芻也.”

47) 『제의총화』 권14, “邵二雲評此文云, 淇澳作二水名, 綠竹作二草名, 亦天然對仗.”

48) 『左傳』 昭公 15년, “六月乙丑, 王太子壽卒. 秋八月戊寅, 王穆后崩. …… 王一歲而有三年之喪二焉.”

다만 이러한 예는 흔치 않아, 명대부터 그 조짐이 나타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대 이후, 특히 18~19세기에 접어들면서 변화 양상이 점차 확대되어 감을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며, 이는 답안을 작성하는 응시자와 평가하는 시관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는 바로 이러한 양상이 팔고문 참고서, 총서류, 개인 문집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을 뿐, 임금의 명으로 간행한 『흠정사서문』에 수록된 글에서는 주자의 해석을 벗어나는 답안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명대 王守仁(1472~1529)의 『중용』 <鳶飛戾天>에 대한 답안<sup>50</sup>이나, 歸有光(1506~1571)의 『논어』 『泰伯』 <舜有臣五人而天下治>에 대한 답안<sup>51</sup>부터 청대 徐用錫(1657~1736)의 『述而』 <子所雅言>에 대한 답안이나 趙炳(?~?)의 『子罕』 <子在川上>에 대한 답안<sup>52</sup> 등 그 시기와 상관없이 거의 일관되는 흐름이었다. 이는 특히 『집주』와 古注의 해석이 분분한 장절들의 답안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sup>53</sup>이었다. 극소수의 답안에서 주자설을 확장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49) 『제의총화』 권14, “錢鶴灘文云, 三年之喪, 不獨父母也. 適孫爲祖爲長子爲妻, 天子達於庶人一也. 周穆后崩太子卒, 叔向曰, 王一歲而有三年之喪二焉, 此足補章句所未及.”

50) 『欽定四書文』 『化治四書文』 권4, <詩云鳶飛戾天>. 王守仁이 지은 팔고문에 대해 시관은 “清醇簡脫, 理境上乘, 陽明制義, 謹遵朱註如此.”라고 평하였다.

51) 『欽定四書文』 『正嘉四書文』 권2, <舜有臣五人而天下治>. 歸有光是 ‘唐虞之際, 於斯爲盛’에 대해 “(요순보다) 周의 신하가 많다”는 하안과 황간의 해설보다는 “(周나라보다) 요순의 신하가 많다”는 주자의 해설에 근본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다.

52) 『欽定四書文』 『本朝四書文』 권3, <子所雅言>. 徐用錫은 雅言의 의미를 바른 말[正言]의 의미로 본 하안의 견해보다는 평소 하는 말[常言]의 의미로 본 주자의 설에 근본하여 답안을 작성하였다. 권4, <子在川上曰>. 趙炳 또한 이 장을 세월의 흐름에 대한 탄식을 담은 장으로 풀이한 황간과 형병의 해설보다는 道의 본체를 물에 비유한 주자의 설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였다.

53) 이에 대해서는 이강재(1998)에서 다룬 구절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213면; 221~222면; 225면 참조.

주자의 설을 파격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그의 설을 존송하며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전서』에 유일하게 수록된 팔고문선집인 이 책에서 주자의 해설을 벗어난 답안이 거의 수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이 책은 건륭제의 명으로 편찬되었기에, 그 이전 시기까지의 팔고문을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청대 학계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이 건·가 시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科場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면 이 책의 편찬 시기와 맞물리지 않았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임금의 명으로 간행한 책과, 개인이 편찬한 책에서 보여지는 편찬 주체에 따른 성격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정조의 御製條問에 대해 초계문신으로서 조정에서 한 대답과 자신의 개인 문집에 실린 글의 文勢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왕명으로 편찬을 지시하고 왕이 직접 감수하는 책에 실릴 글을 선별하는 데 있어 보수적인 편찬자의 시각이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대 건륭제 이후로 과거 시험의 경의문에 주자설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탈주자적 견해에 입각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답안들이 이전 시대에 비해 늘어난 것은 확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답안들이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된 것이 아니라, 시관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위목으로 선발된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팔고문 해설서나 참고서 등에서 예시를 찾을 수 있으며 개인 문집을 통해 실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답안에서 주자설에 엄격한 권위를 부여하고 이를 존송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흠정사서문』과 같이 국가에서 간행한 팔고문선집에서 이러한 예시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그간의 엄격했던 과장의 기조가 청대 후기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 尹鏞, 朴世堂, 丁若鏞 등의 탈주자적 시각을 가진 학자들의 설이 나왔다고 해서 탈주자적 분위기가 학계에 완전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 5. 나가며 - 의의와 한계점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명·청대와 조선시대의 경의문을 통해 양국 과거 시험 답안에 드러나는 존주자적 양상과 이러한 흐름의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나름의 의의와 한계점을 서술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양국의 경의 시험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물로 작성된 답안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면의 한계로, 본고에서는 양국 경의문의 형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았으나 여기에서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중국에서는 송대 경의문에서 명·청대 八股文으로 변화하면서 답안의 작법 구속력이 더욱 심해졌고<sup>54)</sup>, 이는 청대 말의 답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하여 八股的 철저한 격식(破題-升題-起講-入題-起股-中股-後股-束股) 하에 답안이 작성되었다. 반면, 조선의 경우 ‘對’로 시작하여, 중간부에 ‘請申之’, ‘請詳論之’ 등, 결미에 ‘吁, 勤對’라는 투식어가 후기 답안들에 보인다는 점 이외에는 그 형식에 있어 거의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중기까지는 팔고문 수준의 엄격한 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구법이 활발히 사용되는 모습을

54) 『宋文鑑』 권111에는 송대 학자 張庭堅(1074~1131)이 쓴 경의문 2편(『惟幾惟康其弼直』, 『自靖人自獻于先王』)이 실려 있다. 이를 통해 팔고문과의 형식 비교가 대략 가능하다. <왕카이푸 지음, 김효민 옮김(2015), 53~61면 참조>

보이나, 후대로 갈수록 이마저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몇 문장에서 대구가 이루어지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주자설 인용 방식과 그 내용의 변화 양상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의 경의문은 시제와 답안에서 주소가들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이 설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나 팔고문에서는 성현을 대신하여 글을 쓴다는 기조 하에 선유들의 설을 자신의 글 속에 녹여 내어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의 경의문은 시제와 답안에서 『四書大畧』을 포함하여 『朱子語類』, 『晦庵集』 등 주자 관련서와 조선의 주자학자들의 설을 대다수 인용하였다. 그리고 후기로 갈수록 자신의 견해는 거의 신지 않은 채 주자설 의존도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은 청대 18세기 이후의 팔고문에서 古註 또는 다른 경문의 예시를 근거로 하여 주자설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답안들이 종종 출현하게 된다. 즉 중국의 경의문은 답안 내용의 측면에서, 조선은 형식의 측면에서 후대로 갈수록 구속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경의문은 모두 以經解經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주자설을 기본 전제로 서술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여주었다.

청대 이후의 팔고문에서 탈주자적 시각에 입각하여 작성된 답안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元代부터 제정되었던 주자설 위주의 답안 작성 규칙이 점차 완화되고, 당시 학계의 동향을 좇아 科場에도 그 변화의 물결이 조금씩 출렁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양상을 두고 청대 이후 제출된 경의문 답안에서 주자적 색채가 완전히 열어졌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답안들이 훌륭한 성적을 받고 모범 답안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청대 과장에서의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이자 특징지어지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시험 폐지 직전까지도 여전히

존주자의 분위기가 삼엄했던 조선시대의 科場과는 분명 차별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보다 면밀히 양국의 경의문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제의 형식과 시험 대상의 경전이 동일한 원대의 經疑와 조선시대의 四書疑, 송대의 경의문 및 명·청대의 팔고문 가운데 오경을 다룬 것과 조선시대의 五經義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시험 대상 과목이 같은 조선시대 四書疑와 중국의 四書文은 시제의 형식이 다르며, 五經義와 시제의 형식 및 시험 대상 과목이 같은 중국의 경의문은 현전하는 자료 수가 현저히 적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주자설 수용 방식과 의존도의 변화 양상에 초점을 두고 두 과목을 모두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양국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시기와 주대상으로 삼는 경전이 제 각각인 부분에서 오는 미진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후 비교 대상 자료를 더욱 보충하고, 다양한 참고자료 및 개인 문집 속의 경의문 수집이 관건이라 하겠다. 하지만 중국의 과거 시험 관련 자료로의 접근이 어려운 점, 경의문은 과거 시험만을 위한 글이라는 인식 때문에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 등에서 이 또한 앞으로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李學逵, 『洛下生集』, 한국문집총간 290집, 민족문화추진회.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108-116집, 민족문화추진회.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286집, 민족문화추진회.  
『臨軒功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奎11437).  
『南部新書』, 宋 黎靖德 등 編, 四庫全書.  
『四書大全』, 宋 黎靖德 등 編, 四庫全書.  
『宋文鑑』, 宋 黎靖德 등 編, 四庫全書.  
『朱子語類』, 宋 黎靖德 등 編, 四庫全書.  
朱熹, 『晦庵集』, 宋 黎靖德 등 編, 四庫全書.  
『欽定四書文』, 宋 黎靖德 등 編, 四庫全書.  
『制義叢話』, 廣文書局, 1976.  
翁方綱, 『復初齋時文』, 하버드대학교 연칭도서관 소장(T.5486.4 2306)  
管世銘, 『韞山堂時文』, 하버드대학교 연칭도서관 소장(5783 8748)  
金諍 著, 김효민 옮김(2003), 『중국 과거 문화사』, 도서출판 동아시아.  
왕카이푸 지음, 김효민 옮김(2015). 『팔고문이란 무엇인가』, 글항아리.  
水上雅晴(2011), 『清代學術と科擧 - 乾嘉期における學風の變化と受験生の對策』, 『琉球大學教育 學部紀要』 79집, 38면.  
윤선영(2019), 『조선시대 科試의 四書疑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윤선영(2020), 『조선시대 科擧 四書疑 과목에 보이는 尊朱子的 양상 고찰』, 『동아한학 연구』 14집, 501~537면.  
이강재(1998), 『論語 上十篇의 解釋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 Comparisons on civil service examination answers of Korea and China

– focus on Saseoui, Ogyungyi in Jo-seon  
and baguwen in MingQing dynasty –

Yoon, Sun-young<sup>\*</sup>

This paper analyzes civil service examination answers subject about meaning of Chinese classics in Jo-seon and MingQing dynasty. To compare both countries, the author collected sample answers of Questioning on the Four books(Saseoui, 四書疑), Questioning on the Five classics(Ogyungyi, 五經義) and Eight legged essay(baguwen, 八股文). Many answers of Jo-seon distinctly show aspect of respect for Zhu-Xi(朱熹). They directly quoted his word, strongly rely on older scholar's opinion. On the other side, Ming-Qing dynasty's answers also based Zhu-Xi's learning, but they expressed indirectly from Saint's point of view. In addition, a few answers of Ming-Qing shows different opinion or supplement Zhu-Xi's word through old explanatory notes after King Qiánlóng[乾隆帝]. These answers got good reviews and grades from contemporary test supervisors, so selected model answer. This tendency show completely different aspect with late Jo-seon's mood firmly include his learning.

Key word : Civil service examination(科擧), Jingyiwen(answers about meaning of Chinese classics, 經義文), Saseoui(四書疑, Questioning on the Four Books), Ogyungyi(五經義, Questioning on the Five classics), baguwen(八股文, Eight legged essay)

---

\* Resrarch professor, Institute for Sinographic Literatures and Philology  
/ E-mail : bacaaltto@korea.ac.kr

본 논문은 2021년 8월 10일 투고되어 2021년 9월 15일 심사 완료하여  
2021년 9월 19일 게재를 확정하였음.